

5年生以上 課題文⑤

소리에서 온 이름 ‘범’

호랑이의 순 우리말은 ‘범’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을 무척이나
무서워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을 안 자고 보채
는 아이들을 재울 때

“잠 안 자면 범이 잡아간다.”

하고 겁을 주실 정도였지요.

범의 울음소리는 ‘어흥’이에요.

그런데 숲이 울창한 산 속에는 뽕뽕한
나무와 골짜기 때문에 ‘범’의 울음소리가
‘영’하고 들린답니다.

사실은 울림소리가 멍멍해져서 ‘범!’
하고 들려요. 서양 사람들은 폭탄이 터지
는 소리를 ‘범(bomb!)’이라고 하는데, 우
리 나라 사람들한테는 숲 속에서 큰소리
로 우는 범의 울음소리가 마치 ‘범!’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에
요.

어때요? 이제는 ‘범!’하면 무섭죠?

音からきた(付けられた)名前、「ボム」

虎の本来のウリマルは「ボム」です。

昔、ウリナラの人達は虎のことをすごく恐
れていました。

おばあさんやおじいさん達が、夜寝ずにだ
だをこねる子ども達を寝かす時

「早く寝ないと、虎(ボム)に捕まるよ。」

とこわがらせたくらいです。

ボムの鳴き声は、「オフン」です。

でも、森がこんもりとした山の中では、び
っしりとした木と谷間のせいで、ボムの鳴き
声が「オン」と聞こえるそうです。

実は鳴き声が響いて、「ボム!」と聞こえ
るのです。西洋の人達は、爆弾が爆発する
音を、「ボム!(bomb!)」と言いますが、
ウリナラの人達には森の中で大きな声で吠
える虎の鳴き声が、まるで「bomb!」
と爆弾が爆発する音のように聞こえたとい
うことです。

どうですか?これからは、「ボム!」とい
うと怖いでしょう?